

2026년 표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 7:24)

다니엘
시리즈

- 10/4 뜻을 정한 사람 (단1:8-9)
- 10/11 위기가 기도의 문을 열다 (단2:17-18)
- 10/18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단6:10)
- 10/25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다 (단9:1-3)
- 11/1 첫날부터 들으셨다 (단10:10-14)

주일예배

순서	1부 7시	2부 9시	3부 11시
묵도	입례송		
찬송	만 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1절)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288장)		
합심기도	회개와 예배를 위한 기도		
대표기도	조균석 안수집사	박희정 장로	박봉철 장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벤엘 찬양대
광고	설교자		
성경	다니엘 1장 8-9절 (구p.1231)		
헌금	감사기도		3부 박민근 최선희B
말씀	다니엘 시리즈(1) 뜻을 정한 사람		
	금경연 목사		
찬송	세상 흔들리고		
축도	설교자		

다음기도 | 김규환 안개동 박신열



IRIJUNGANG CHURCH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리중앙교회



담임목사 금경연

(우) 54594 전북 익산시 중앙로 37 사무실 851-4311 FAX 858-1385 www.irijc.co.kr
이리중앙교회 웅포수양관 전북 익산시 웅포면 칠목재로 202-26
담임목사 방송설교 매주 월요일 06:30 FM 91.1MHz (전북극동방송)

4부예배	청년부실 오후 2시
본당에서 주일오후예배 (청년부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후예배	청년부 연합예배 본당 오후 2시
찬 양	아뉴스데이
기 도	오은숙 권사
광 고	담당자
성 경	출 33:7-11(구 p.133)
말 씬	친구와 대화하듯이 금경연 목사
축 도	금경연 목사

다음기도 최다빈

수요일예배	월삭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엘레오스 찬양단	
기 도	오승주 권사	
광 고	설교자	
성 경	빌립보서 2장 1-5절 (신p.320)	
말 씬	한 마음을 품는 교회 금경연 목사	
축 도	설교자	

다음기도 이정애B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금요 찬양단	말 씬	설교자
특 송	할렐루야 찬양대	기도인도	인도자

다음특송 벨엘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김병준강도사	금경연목사	금경연목사	금경연목사	김성훈목사	박신열장로	김민영전도사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1세미나실	1세미나실

이번주 암송구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갈라디아서 6장 9절 -

2026 성경통독

성경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독하신 분들은 통독표를 교구사역자나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0주차 통독횟수 : 259

결혼소식



김민성 나소원

신부

1교구 허영란집사 차녀

일시 2026년 10월 10일(토)
오전 11시

장소 전주 아름다운컨벤션
1층 펠리시타홀

결혼소식



최승규 소재은

신부

4교구 소홍섭집사 이혜숙집사 장녀

일시 2026년 10월 10일(토)
오후 6시

장소 전주 더메이호텔
2층 그랜드볼룸

새 소식

오후예배

오늘 오후예배는 청년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다음주(10/11) 오후예배는 젊은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월삭 수요일예배

이번 주 수요일예배(10/7)는 월삭 수요일예배로 드립니다.

▶ 대상 : 모든 성도(중직자, 구역장, 부구역장은 필히 참석바랍니다.)

2026 다니엘기도회

11/1(주)-21(토)까지 21일간 다니엘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세대 이름 공모전 발표

▶ 공모결과 : 이음

▶ 시상 : 당선된 분께는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교역자 동정

김병준 강도사 목사안수

▶ 일정 : 10/8(목) 10:00, 어양교회

뮤지컬 더 북

▶ 일정 : 10/23(금) 20:00, 10/24(금) 14:00, 18:00 기쁨의교회

▶ 티켓 : 5,000원(기존 10,000원, 교회지원 50%) 담당교역자

모임 & 모집

월례회

▶ 아브라함회_10/9(금) 야유회로 진행됩니다.

09:40까지 집합 후 10시 교회 출발

▶ 안수집사_오후예배 후_1세미나실

▶ 권사회_오후예배 후_본당

이리노회 LMTC 37기 훈련과정

▶ 일정 : 9/29(화)~12/1(화) 19:30~21:30, 기쁨의교회

▶ 대상 : 선교훈련을 받고 싶은 분 ▶ 참가비 : 100,000원(교회지원 50%)

▶ 문의 : 김성훈 목사(010-6630-1519)

익산시 교회연합 선교축구대회

▶ 일정 : 10/5(월) 08:50, 신광교회 잔디구장

지역섬김 반찬나눔

▶ 일정 : 10/9(금)~10/10(토)

▶ 대상 : 권사회, 여전도회 연합

권사 피택자 야유회

▶ 일정 : 10/10(토) 09:50, 봉어섬

▶ 대상 : 2026년 권사 피택자

젊은세대 찬양팀 모집

젊은세대와 함께드리는 오후예배에서 콰이어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찬양팀 카카오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젊은세대 가을캠핑

젊은세대의 모든 구역과 구역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정 : 10/11(주) 16:30, 웅포수양관

고등부 야외예배

- ▶ 일정 : 10/11(주) 11:00, 웅포일대

유치부 가을소풍

- ▶ 일정 : 10/17(토) 09:30, 정읍 기적의 놀이터

유년부 가을소풍

- ▶ 일정 : 10/17(토) 9:00, 대전 오월드

초등부 미래직업체험

- ▶ 일정 : 10/17(토) 9:00, 분당 잡월드

교우소식

출산

4교구 김동희성도(엄민희성도) 득녀

4교구 박효정집사 득남

입원

4교구 김수진성도 원광대병원 2관 566

입상

청년부 김가경청년 전국실업육상대회 800m 전국 3위



교회 반주 세미나

- ▶ 일정 : 10/24(토) 16시, 본당
- ▶ 강사 : 폴리신스
- ▶ 내용 : 피아노 반주법 및 신디사이저 반주법
- ▶ 신청 : QR코드



임시공동의회 소집

[정관 제 6장] 재정운영 3억원 초과는 공동의회 결의로 함
의거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 안건 : 건물매입(후문 옆, 전 홍치과 건물)
- ▶ 일정 : 10/11(주) 3부예배 후 본당
- ▶ 자격 : 본교인 등록한 19세 이상 무흠 세례(입교인)교인
- ▶ 방법 : 무기명 투표
- ▶개표위원 :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회 임원

2026 바이블 챌린지

성경암송대회

암송구절은 로비에 비치되어있습니다.

1차 필기고사 후 성적우수자에 대해 2차 성경암송발표를 진행합니다.

- ▶ 1차 : 10/18(주) 오후예배 시, 필기고사
- ▶ 2차 : 10/25(주) 오후예배 시, 암송대회
- ▶ 상금 :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성경필사

성경필사제본을 12/6(주)에 본당 로비에 비치합니다.

필사노트는 11/29(주)까지 담당교역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성경다독상 시상이 12/27(주) 오후예배 시 있습니다.

성경통독표는 12/20(주)까지 담당교역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캄보디아(김주환,유화연)
해외 슬로베니아(박 찬) 태국(이응윤) 스리랑카(김태엽) 필리핀(오승준,최주선)
네팔(이해덕,조현경) 태국(김수현) 태국(김익만) 인도네시아(남주영) 미얀마(최동화)
니카라과(서치환) 몽골스흐바타르(남성호) 몽골울란바타르(강대룡)
국내 서울나눔인(윤근호) 정읍소망(이겸본) 광주하일(이용권) 보령풍정(배유신) 순창성암(유영미)
서울함께하는(이인호) 순창반석(유인상) 가야곡동산(서무석) 링크처치(김정) 풍성(최형)
익산월성(이찬호) 옥천가산골새터(김태순) 청산도중앙(김동명) 청양화성중앙(김성현)
기관 어린이전도협회익산지회 현대종교 총신낙도선교회 전도폭발한국본부 논산훈련소입소대교회
기독교자살방지예방센터 총신대학교 이음세움미니스트리 전주대CCC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에꿈선교회 전북극동방송

온라인 헌금안내 ✉

십 일 조 1013-01-3521723 감사헌금 1013-01-3521789 전북은행
일반헌금 1013-01-3521820 비전헌금 1013-01-3521808 예금주 : 이리중앙교회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강영인	김병철A	김정순C	박양례	오점례	송미정	임규인	정남기	한상옥	김미옥	남옥정	원경준	이기쁨	임강연	최대성
강혜엽	온정숙	김해순	김윤성	신성섭	이순근	임두영	박선임	백옥매	김미진B	노일환B	유계숙	이미순	임성희	송은영
고건일	김복순A	김현숙B	박연자	유순이	서은자	임새창	정동식	한용호	김상환B	최평덕	강석진	이미영B	임애림	최선옥
윤옥주	김복진	남근우	서영과	유순자	이순동	이희자	김혜영	유인자	김선미A	문정숙	유초순	이성록	임정훈	최성옥
고경일	김 열	김백희	서은석	임준빈	이순자	임새훈	정영희A	황용만	정 훈	박미영A	육사무엘	이연주	전정순	허아지
황선식	손은순	노광수	안민영	유옥자	이신아	임정옥	조수근	변계옥	김유진B	박신열	정행화	이영례B	전현정	무 명
고정열	김영갑	양현미	성민준	유정심	이영래A	임해균	김성님	황의경	김정호	박인수	윤석노	이영훈	정교명	
금경연	이남순	류인대	정은경	윤영숙	한일순	김경란B	지문선	황인숙	김보경	박형태	박인혜	이용현	김옥B	
홍연화	김의영	이신자	소홍섭	이경희B	이영숙B	장금례	장경희	강 용	김지혜A	서찬준	윤 정	이향길	정정자B	
금예서	문구영	문갑순	이혜숙	이계성	이인선	양현호	진정화	강현도	김탁현	임은미	윤정순	이원영A	조미례	
김규대	김인수A	문흥성	송은주	이내성	김진효	장오식	차명자	공남전	김한봄	송애련	윤충희	이미경B	조윤영	
박부임	송순의	김영숙A	박경원	이봉년	이정주	이유숙	최연숙B	윤명옥	홍영주	양미영	김경순C	이정애B	진명화	
김병준	김임순	문경진	안영숙	이성기	이종섭	전수영	최지영	김규식	김현옥A	원경미	이경보	이향심	채은숙A	

감사

강미경	곽현진	김송수	김형근	이은혜	서명순	엄현숙	이봉순	임새창	정우진	한상옥	김다은	박종희	정은주A	전정순
강영인	김경란A	김득남	김형문	문복자	서은석	조수현	이수형	이희자	정호성	백옥매	이상현	배예준	육사무엘	정은경B
강옥희	김귀복	김순영	신란희	문태민	안민영	오생균	이순자	장금례	이설아	한성규	김성국	서백금	정행화	정 현
강정순A	김규대	김순자B	김형철	박성범	서시온	정경혜	이영래A	양현호	조경순B	김세영	소정인	서찬준	윤석노	조남미
강혜엽	박부임	김 열	김화진	김창신B	서리온	원선영	한일순	장주형	최명애	홍신자	김윤미	임은미	박인혜	조승완
고건일	김금자B	손은순	나옥자	박유준	서정순	유순이	이영래B	전민정	최병용	황순덕	김정희	서호식	이대수	채병희
고영은	김대경	김영진	남궁숙	정진화	최영숙B	윤석연	이은숙	전종배	최선옥	황순정	김지혜A	소 향	이명희	최재영
이만숙	김대균	문영신	남근우	박정순	송희성	윤희수	이인선	전정아	최영열	강감찬	김현자B	안도신	이선주	최희자
고인규	김대방	김완수	노숙경	박종림	정경자	전현숙	이점순A	정금자	손미애	강병규	김형순	소홍섭	이성록	한도형
곽일심	김병준	노은옥	김유정	박진수	신덕래	이경선	이정주	정성길	최운분	고정화	나화순	이혜숙	이숙균	허아지
곽정호	김봉선	김용미A	문구영	안기옥	안개동	이경숙	이향길	이규선	최인순	구성권	이혜연	손미영	이승열	무 명
김지순	조성민	김정관B	김의영	박병희	송승현	이경희B	이현정	정영석	최정희B	권성우	강수용	송지은	이해이	
곽태훈	김상우	서소희	문대호	박천식	안재온	이계성	임두영	이영애B	최진우	배정희	문정숙	신효섭	임기록	
곽민지	조혜숙	김정순C	김혜숙A	정춘자A	양현서	송순애	박택수	정영희A	소현숙	김기상	박성희B	장은미B	전미순	
함인숙	김성곤	김해순	문병준	서금옥	엄길예	이미자	임복자	정에서	최현숙	김기풍	박일규	양현태	최성우	

꽃꽂이 비전

소 향
안도신

생일

강세욱
김복순B
김성희
유인자
이미숙

선교

고경일
황선식
김 열
손은순
박선임

박승화
박영준A
유옥자
이순자
이영래A

이웃사랑

이영숙B
임새창
이희자
정영희A
정향진

진정화
최갑열
최미정
최선옥
최지영

황윤옥
조미례
윤석노
박인혜
조미례

서은석
안민영
박인혜
조미례



금경연 목사

다시, 말씀 앞에 (2) 말씀이 내 길을 밝힙니다

시편 119편 97-105절

시각장애인인 에릭 바이헨마이어가 대원들과 함께 에베레스트 산 쿡부 빙폭을 지나갔습니다. 보통 7시간 정도 걸리는 구간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에릭과 대원들은 무려 13시간 42분이 걸려서야 그곳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쿡부 빙폭은 협소하여서 한 발만 잘못 디어도 갈라진 틈으로 빠지게 되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당장 앞 길을 알 수 없고 고난과 위기를 마주하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고 선포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1.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밝힙니다.

본문 97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읊조리다'라는 단어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묵상을 의미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일상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매 순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견주어 깊이 되새기는 것이 바로 '읊조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길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실천적 지혜,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라고 말하는 통찰력, "노인보다 나으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함이 생기게 됩니다. 시인이 스승이나 노인,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라고 밝히듯,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생각을 밝히는 모든 능력의 출처가 오직 항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과 지식만으로는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주여,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이 지혜로 안착되면, 104절의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라는 증언처럼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머리로 알면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경질을 내거나 다투며 악한 길에 발을 디뎠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알면서도 반복해서 빠지는 악한 길을 벗어나고 미워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을 무작정 쫓아가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환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영적 침체』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자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자아가 내게 속삭이는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안과 절망을 불어넣는 자아의 소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자아를 향해 시편 42편 5절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해야 합니다.

2.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밝힙니다.

본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등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손바닥만한 작은 등잔을 가리킵니다. 그 등잔에 불을 붙이면 불빛은 저 먼 곳까지 비추지 못하고 겨우 내가 내디딜 바로 앞의 한두 걸음만을 비출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저 먼 미래까지 알려주어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땅히 내디뎌야 할 바로 그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먼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고 오늘 내디딜 한 걸음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방식입니다. 만약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과 미래를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시는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다음 한 걸음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침내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해서 삶의 고난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인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고난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그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겹고 힘겨운 일상일지라도 다시 한 걸음을 디디어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각장애인 등반가 에릭 바이헨마이어가 거친 쿡부 빙폭과 험난한 에베레스트를 돌파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소리에 있었습니다. 앞에 걸어가는 동료의 배낭에 달아놓은 방울 소리가 길을 안내었고, 위험한 길이 있으면 소리를 쳐 에릭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한 결과, 2001년 5월 25일 시각장애인 최초로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이라는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모르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세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힘과 경험으로는 이 위험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내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소리를 따라 승리의 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철학 및 5대 비전

☉ 목회철학

은혜로운 교회!
살아나는 교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47:9

☉ 5대 비전

1. 예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2. 교제

공동체적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3. 양육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4. 선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5. 계승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예배 안내

구 분				시간	장소	구 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장년		오전 07:00	본당	교회 학교	돌봄교실			오전 09:00	제2비전관 1층
	2부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00	제2비전관 1층
	3부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교육관 1층
	4부	청년		오후 02:00	청년부실		유년부			오전 11:00	교육관 2층
	오후	장년		오후 02:00	본당		초등부			오전 11:00	교육관 3층
수요예배				오후 07:30	본당		중등부			오전 11:00	교육관 4층
금요기도회				오후 08:00	본당		고등부			오전 11:00	제1비전관 4층
새벽기도회				오전 05:00	본당		수요어린이			오후 07:30	제2비전관 1층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금경연

부목사 김성훈 청년부·음향·양육·보배
배예준 행정·고등부·미디어·교육총괄

강도사 김병준 중등부·젊은세대·찬양·전도

전임전도사 이인선 3교구·4교구·새가족
김민영 늘푸른·영아부·중보기도
이향심 1교구·2교구·찬양총괄

교육전도사 최은혜 초등부·수요어린이
김유진 유치부
문정숙 유년부

파송선교사 김주환 유화연

원로장로 고건일 유은철 임길래

은퇴장로 유일근 김재근 김영갑 이내성
최갑열 김인수 최평국 정영석
전종배 김상우 송철수 박규준
최성옥 오규식 김기용 박중서
김형문 강태봉 강세욱 황용만

은퇴무임장로 김종민 박영준 류인대

사무장로 노재환 윤석노 육사무엘 조남희
박희정 박봉철 안개동 박신열
김일호 강현도